

# 건축, 모두의 언어

Architecture, Language for All



**정 이 삭** Chung, Isak  
에이코랩 대표  
Principal, a.co.lab  
chungisak@hotmail.com

## 머리말

11월 중순 경 모 대안 미술공간의 전시 개관 뒤풀이 자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님이었다. 전화의 내용은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큐레이터로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아직 구체적이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함께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돌아와 어수선한 술자리 한 가운데에 앉아 2016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총감독인 건축가 알레한드로 아라베나의 비엔날레 관련 기사를 읽었다.

‘건축이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 시대 건축의 외연의 경계는 어디인가.’ 기사 속 아라베나 총감독의 말들이 필자에겐 그렇게 이해되었다. 건축이 갖는 순수성의 빛에서 멀리 떨어진 채, 어스름한 변방을 더듬어 지도를 넓혀가는 대한민국 건축의 최전선을 보여달라는 요청으로 들렸다. 무작정이었던 베니스에의 의지가 빠르게 작정에 이르게 되었다.

## 건축, 모두의 언어

용적률이라는 단어는 분명 건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이지만 최근까지 건축 학계에서 그것을 비평의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건축 실무자들 역시 용적률이 건축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에는 인정하나 그들 건축의 개념어로 활용하는 예는 드물고 그러한 사용이 어찌면 다소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십여 년 전 네덜란드의 MVRDV 같은 전위적 건축가 집단이 용적률의 개념을 그들 계획의 출발점으로 삼아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인구포화의 미래적 고밀 도시 건축에서의 선언적인 용적률 극대화 계획 개념이 건축비 대비 지가가 기형적으로 큰 현 한국의 중간건축 시장에서의 용적률 극대화 개념과 유사하게 해석될 이유는 적다. 인구와 건조면적 밀도 같은 사회적 인자가 중시되는 대도시 환경에서의 용적률과, 지대라는 자본론적 인자가 핵심인 대한민국 소규모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의 용적률은 그것이 이루어낸 최종 현상은 유사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에서 출현한 두 개의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아무튼 한국 내에서 건축을 둘러싼 여러 영역들이 모두 용적률을 외치고 있을 때, 건축가 집단만이 그 단어를 애써 외면한 것은 사실이다. 반면 한국의 집주인들은 또는 건축주들은 이 용적률 개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비싼 땅값을 보상받기 위해 용적률 극대화를 원하는 그들은 때로 건축가나 건설자에게 여러 편법과 합법을 이용해 용적률을 극대화 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건축가들은 그러한 시장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마치 그들의 역량이 평가 절하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러한 현실적 문제의 원인 이해와, 해법 탐구, 그로 가능할 수 있는 건축의 사회적 개입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공간의 미학과 은유적 의미들을 강조해왔던 것이 최근까지의 한국 주류 건축계의 현실이었다.

그러한 건축계가 바뀌고 있다. 소위 집장사라 불리는 이들의 영역이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다가구, 다세대

주택 시장에서 건축가들의 작업이 여럿 발견된다. 심지어 그들의 모토는 용적률의 극대화와 건물주의 최대 임대 이윤 창출이다. 그들은 대개 젊은 건축가들이며 현실의 이해를 그들 건축 개념 언어의 기반으로 삼는 집단이다. 그렇다고 어느 날 사회 및 자본 친화적 젊은 건축가 연대가 출현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이 새로운 개념에 목마르고 일거리에 목마른 젊은 건축가들에게 더 이상 할 말도 지을 곳도 없는 현 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선택지였을 수 있겠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 건축계가 이 사회와 면한 가장 치열한 전선이다. 그 전쟁의 목적이 정말 건물주의 최대 이윤인지, 정복일조를 넘나드는 사선인지 알지 못한 채, 매일의 싸움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비엔날레 전시 준비팀은 이러한 현상을 논의의 테이블 위에 올리고자 했다. 최대 용적률도, 정복일조도, 집장사도, 다세대 다가구도 건축가만의 언어는 아니기에.

## 문제 찾기, 답 찾기

김성홍 큐레이터가 전시 준비 중 수차례 자문한 그리고 공동 큐레이터들에게 던진 본 전시의 가치에 대한 물음이 있다. 우리가 이 전시를 하는 이유를 찾는 일이자, 결국 대안이나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게 될 본 전시가 비엔날레 전시장 방문자와 한국의 건축계 그리고 사회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여전히 필자의 이 생각이 전시팀 전체의 동의된 의견이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이 가치에 대한 이슈가 답을 찾느냐 문제를 찾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필자는 비교적 쉽게 그 가치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전시의 근본적 이유가 답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시는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질문이 전시자와 관객에게 동시에 전달되어 좀 더 나은 대화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친숙함과 새로움의 경계 어딘가에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대 대한민국 현대 건축이 마주하는 전선을 여과

없이 답도 없이 그대로 무대에 올리는 일은 바로 그 대화와 상상의 주제를 만든다는 것에서 유의미한 것이다. 용적률이 만들어낸 기존의 풍경,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젊은 건축가들이 생존의 무게 속에서 투쟁의 결과로서 만들어낸 풍경, 그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혹은 그들의 병치가 만들어낸 우리의 도시 풍경은 과연 옳은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인지. 집장사는 우리의 주거문화에 공헌한 것인지 폐를 끼친 것인지. 건축가들이 폄하하는 그 저급한 시장의 속리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따라서 결코 뛰어넘지 말았어야 할 것인지. 건축가는 결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믿음은 교만인지 윤리인지. 수도 없는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시가 한국에 들어와 전시되고 우리의 사회의 일반과 만나는 순간이 기대된다. 여전히 다소 어려운 내용이지만 결코 쉽게만 전달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중에 우리는 전시팀도 몰랐던 중요한 우리들만의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건축가들은 집을 짓는 도면을 그려 먹고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건조 환경의 모습과 그로인한 영향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멋진 작품만을 만드는 이들도 있지만 멋지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고 믿는 이들도 건축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다시 상기할 것이다.

## 용적률 게임의 선배

건축가들이 이제 막 진입한 시장에서 최근까지 건축가 없이 작동되어온 시장의 모습을 꼼꼼히 보는 일은 중요하다. 그 집장사와 건축가가 과연 뭐가 다른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기도 했다. 용적률의 게임은 사실 건축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선례가 있다. 그 선례들을 다소 세련되게, 합법적으로, 과장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건축가들이 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일반적인 지역 시공자들이 지어내는 건축물에는 다양한 형태의 용적률 게임이 있다. 대부분 준공 이후에 무언가를 덧대거나 추가하여 층을 만들거나 외부 면적을 내부화 하는 방식들이다. 크게 수평 용적 게임과 수직 용적

게임으로 구분하여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다.

수평 용적 게임으로는 옥탑 공간 주변 외부나 발코니, 외부계단 등에 알루미늄 샷시 등을 덧대어 실내화 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또한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추후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공 시 미리 조치를 해줬다가 준공 후에 막아 실내로 사용한다던지 발코니 양 측면에 날개벽이라는 것을 만들어 역시 준공 이후에 날개벽에 의지하여 발코니 바닥면적을 대지 경계방향으로 늘이는 등의 수평면적 확장의 용적률 게임이 있다.

수직 용적 게임의 대표적인 예는 물탱크 실을 일반 실 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과거 물탱크 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었어야 했을 때, 그 물탱크 실을 만들어 신고하고 나중에 그 물탱크 실 바로 아래층과 내부로 연결하여 다락처럼 사용하는 예도 다수 발견된다. 좀 더 창의적인 방식으로는 한 개 층의 층고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화 한 이후에 준공 후 중간에 중층을 만들어 넣는 방식이다. 또는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반지하층을 대지의 가중 평균면에 기준해서 절반도 묻지 않고 대략 1/3 정도만 묻히게 시공하여 지상층 같은 지하층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젊은 건축가들에게서 발견하는 용적률 게임이 건축가들이 스스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장을 관찰해서 보완하거나 합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싸움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 이것 역시 건축계 내에서 질문해봐야 할 부분이다. 어떤 것이 다른가. 어떤 가치를 더 만들어 냈는가. 즉, 그들이 비하해온 집장사에게 영감 받은 작업들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님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냈는지.

### 은유 아닌 형상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정면 입구 우측 우리의 저층 주거지역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전형적인 다세대 주택 한 채의 모델이 전시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의 어느 주택이자, 필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리모델링한 건물이다. 하지만 리모델링한 이후의 모습이 아닌 그 변경 전의 형상이 전시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

지만 그 중 하나는 변경 전의 모습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변경 후의 그림보다 변경 전의 그림을 더 많이 그렸고, 변경 후의 모델보다 변경 전의 모델을 더욱 상세하게 만들었다.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이름 없는 지역 시공자의 건물이라고 여겨져서 건축주는 모두 가리자고도 얘기했던 입면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또한 그러지 않아야만 한다고 믿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의 그 시공자의 윤리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 디자인의 합리성과 시공 품질을 따지고 싶지도 않다. 그러한 것만이 이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건축가를 비롯한 우리 사회는 철저히 그러한 객관적인 기준들로만 우리 일반 주거환경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근대 건축이 강조하는 여러 가치와 그것이 정의한 여러 기준에서 초라하다 여겼다.

1980~90년대 대량 생산된 이 유형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싫든 좋든 우리의 한 시대 주거 문화를 담당한 소중한 유산이다. 그것은 지우려고 해도 결코 지워낼 수 없는 우리의 실체적 기억이다. 그리고 연남동 리모델링 작업은 근대적 개념의 건축가가 이 땅에 생겨난 이래 단 한번이라도 그러한 실체들에 관여하여 건축가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고민한 적이 있는가 묻는 작업이다.

1950년대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과 도시계획자들은 전후 황폐해진 도시 주거환경을 빠르게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건축이



그림 1. 다세대 주택



그림 2. 건물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 했던 이 운동은 메타볼리즘이라고 불린다. 우리 건축계에 일본의 이 운동과 같은 유사한 경험은 적다. 개별적인 사회 관여 건축적 사례들이 있지만 집단적 운동으로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건축이 내부에서 문제를 찾고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주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온 반면, 한국의 건축이 갖는 서구 콤플렉스가 사회와 함께 담론을 형성하기보다는 선례의 답습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실체에 다가가지 않고 은유적인 말들로 건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건축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 주거 환경을 극복하는 힘은 서구의 모더니스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폄하하는 집장사들이 지은 그 혼한 적벽돌 건물에 녹아있다. 우리는 그 실체를 해부하고 정성껏 들여다 봐야 한다. 연남동의 작업은 은유가 아닌 그 실체를 상대하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그 리모델링으로 변경되기 이전 실체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했으므로 그 변경 전의 모습이 재현되어 한 국가관의 정면을 차지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관 가장 안쪽 실에 근 과거 우리의 그러한 여러 화상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 작가들의 작업이 있다. 백승우는 그것을 멋진 기념비마냥 카메라에 담아 프레임했고, 강성은은 아주 세밀한 붓으로 그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존재들은 조심스레 화폭에 옮겼다. 정연두는 그 개체들이 모여 만드는 가로외 풍경에 밝은 조명을 비추어 영상을 제작했다. 모두 평소 아무도 주목하지 않

고 없어도 무방하다고 여기는 일상의 주거환경을 조명하는 작업이었다. 본 전시의 궁극적 가치가 바로 이러한 현재들을 마주하는 이 사회의 태도에 대한 물음임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다.

### 맺음말

용적률은 모두의 언어다. 그리고 건축 역시 모두의 언어이다. 건축을 만들어낸 이는 건축가가 아닌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간을 살피고 배워야 한다. 그 안에 질문도 답도 있기에. 계속해서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 이 사회 안에서 건축의 역할은 무엇일지, 보다 나은 환경은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때의 방법은 유일지 형상일지.□

### 필자 소개

정이삭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에서 '서울 환형도심에 관한 설계연구'로 전 문사(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3년부터 에이코랩을 운영하며 다수의 공공 건축 작업과 건축 및 도시 관련 연구 영역을 수행중이다. 또한 여러 동시대 건축, 도시, 미술 전시를 기획하고 참여한 바 있다.